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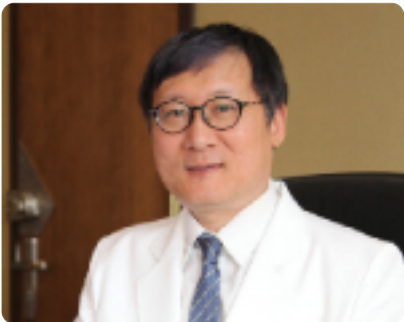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 대한수혈학회 회장 선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는 5월 20일과 21일 대구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열린 2016년 대한수혈학회 학술대회에서 3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수혈학회는 수혈 및 그 연관 학문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혈 요법을 정착시키고 회원 상호 간에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1982년 창립했으며,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채석래 회장은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경영실장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제5대 병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진단혈액학회 회장과 대한수혈학회 부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우수 학술연구비상 수상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는 5월 20일 한국임상 암학회 제14차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우수 학술연구비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한국임상 암학회 심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의 우수성을 심사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는 상으로 김 교수는 ‘국내 암 환자 진료의 다학제적 진료체계의 현황 분석 보고’ 연구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날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다학제적 암 치료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여 암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찾기 위한 진료 체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김 교수는 현재 한국임상 암학회 보험정책 위원회와 대한 항암화학요법 연구회 두경부암 분과, 완화의료 분과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03 진료협력센터, 보리수요양병원과 진료협력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5월 16일 김포시 소재 동행 의료재단 보리수 요양병원과 진료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리수 요양병원 이사장 범우 스님, 손양호 상임 이사, 김민용 원장 등이 참석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개원한 의료법인 동행 의료재단 보리수 요양병원은 600년 전통사찰 용화사 경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계종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요양병원으로, 여타 요양병원과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신경과, 한방내과, 가정의학과 등 양 · 한방 통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복지를 통한 불교 포교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진료협력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병 · 의원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04 강원도 영월 한방 의료봉사 펼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5월 22일 쌍용양회와 함께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쌍용리복지관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김동일 교수, 민상연 교수, 임성우 교수, 홍승욱 교수와 전공의 2명,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 기사 등 25명의 교직원이 참여했으며, 진료상담부터 투약, 침, 물리치료, 혈압과 혈당검사 등 다양한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3년 처음 쌍용양회와 인연을 맺고 시작된 의료봉사는 올해로 4년째 매년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05 ‘중년 이후의 올바른 건강관리’ 건강강좌 개최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는 5월 20일 중산동 성당에서 지역주민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년 이후의 올바른 건강관리법’에 대한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갱년기장애 섭생법과 치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운동과 음식 섭취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과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함께 해 보는 시간을 가져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시민건강교실’에 참여하여 매달 다양한 주제로 지역민을 만나고 있다.

